

‘수소 전도사’ 정의선, 美 정부와 저변 확대 ‘잰걸음’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차, 美 에너지부와 수소 MOU
수소전기차 美전역 확대 기반 조성
“수소기술 다양한 산업군서 활용
지속가능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글로벌 수소 사회 구현의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국주지사들과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수소전기차의 타월한 친환경과 경제적 효과를 알린데 이어 최근 에너지부와 수소경제 협력체계 구축을 이끌어내는 등 세계 수소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현대차는 10일(현지시간) 미국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미 에너지부 수니타 사티아팔 국장과 현대차 연료전지 사업부 김세훈 전무가 수소 및 수소연료 전지 기술혁신과 글로벌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를 운영해 확보한 실증 분석 데이터를 학계, 정부 기관, 기업 등과 공유하고 수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알려서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 혁신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오른쪽)과 미국 에너지부 마크 메네제스 차관이 미국 에너지부 청사 앞에 전시된 수소전기차 넥쏘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차는 에너지부에 수소전기차 넥쏘 5대를 실증용으로 제공하고 워싱턴 D.C.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한다.

현대차와 미 에너지부는 넥쏘 투입과 수소충전소 개소를 통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실증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계, 정부 기관, 다양한 산업 분야와 공유할 계획이다.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교육과 인력개발 프로그램 등에 제공하고 자동차 이외의 산업과 일반 대중의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적극 제고할 방침이다.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수

용성 증대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운송 분야에서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소 응용 산업군의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번 MOU 체결로 캘리포니아주 중심으로 보급된 수소전기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 관련 정책과 미래 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2000년대 초부터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날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마크 메네제스 에너지부 차관과 만나 지속 가능한 미

래를 위한 수소사회 구현의 필요성과 비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활용이 가능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수소연료전지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수소연료전지 기술 대중화에 적극적이며 미 에너지부가 수소의 미래 잠재력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번 협력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수소사회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메네제스 차관은 정 수석부회장이 동석한 가운데 미 에너지부 청사 앞에 전시된 넥쏘를 직접 운전하며 넥쏘의 친환경성과 성능 등을 체험했다.

현대차그룹은 2004년부터 에너지부와 협력해왔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시범운행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해 1세대 투싼과 2세대 스포티지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수소전기차 33대를 투입했다.

섭씨 35도~4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5~7% 경사 산악 지형 등 가혹한 환경

과 도로조건에서 성능을 시험하며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속도를 냈다. 2012년 ~2017년에는 투싼 ix 수소전기차 10대 시범운행을 공동으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에너지부가 함께 시범운행한 수소전기차가 43대가 미국 전역에서 다닌 거리는 200만km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과 미국 ‘연료전지및수소에너지협회(FCHEA)’도 이 날 워싱턴 D.C. FCHEA 사무소에서 MOU를 체결했다.

H2KOREA 문재도 회장과 FCHEA 모리 마코위츠 회장은 한·미 양국의 수소산업 발전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자동차시장 전문 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미국과 한국의 수소전기차 보급대수는 각각 7937대와 5126대로 세계 1, 2위다. 향후 한·미 양국 수소협회 간 협력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수소 관련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협회이고, FCHEA는 GM, 퓨얼셀에너지 등 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시각장애인 ARS 인증없이 상담사 연결”

LGU+ 장애인 친화 고객센터 개편

LG유플러스는 시청각장애인 고객이 고객센터 통화와 ARS(자동응답서비스) 인증 시 상담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고객센터로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화면을 보고 숫자를 입력하는 ARS 인증절차 없이 바로 상담사와 연결, 음성 통화로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이용자는 상담 중 추가 기본 인인증이 필요한 업무를 요청하면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문자인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 청각장애인 고객이 고객센



터에 전화하면 보이는 ARS가 자동으로 실행,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채팅상담’ 기능으로 실시간 대화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1·4분기 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 ‘U+숍’에 청각장애인 전용 채팅상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대우조선해양, 친환경 선박 기술력 강화

한화디펜스와 선박용 ESS 공동연구
오염물질 배출·연료절감 효과 기대

대우조선해양이 한화디펜스와 손잡고 친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디펜스와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전무)과 곽종우 한화디펜스 사업총괄(전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며 연료전지와 더불어 차세대 선박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는다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전무(오른쪽에서 네번째), 곽종우 한화디펜스 전무(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에너지저장시스템 공동연구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사는 선박 내 발전기와 전력부하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이 제품은 선박 운항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연료 사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대우조선은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진에어 항공권, 토스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간편결제 수단에 토스 추가 도입

진에어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지난 10일 간편 결제 수단으로 토스(toss)를 추가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스는 은행 계좌와 연동된 토스의 충전 수단 ‘토스머니’와 토스 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항공권 결제 단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토스를 선택하면 해당 앱과 연동돼 기존에 설정한 비밀번호나 지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진에어는 2015년 국내 항공업계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페이를 도입하며 지속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17년 네이버페이와 지난해 페이코를 도입했으며,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와 라인페이, 페이팔 등을 추가해 해외 고객들의 결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실제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2018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특히나 모바일 결제 이용률도 꾸준히 확대되며 전체 결제자 중 35%가 넘는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항공권을 결제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코트라 “신종 코로나 피해 최소화 전면 대응”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무역전 흥사업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KOTRA(코트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수출영향 최소화를 위해 전면에 나선다.

코트라는 수출플러스 전환의 복병으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비상대책반 반장을 기관장으로 격상시키고, 전세계 129개 무역관을 활용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코트라는 그동안 주로 중국 지역 22개 무역관을 활용해 우리 진출기업의 다음과 같다.

▲중국내 생산차질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어려움 ▲방호물품 부족 ▲인력복 귀 지역 등에 따른 노무 애로 ▲항만인력 부족 및 교통통제로 인한 물류 차질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정보 제공 부족 등이다.

중국 당국은 10일 휴무 종료에 맞춰 사전승인 후 사업장 가동을 허용하고 중국내 진출기업의 납기지연 등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긴급히 중국 성시정부별 조업재개 요청과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방법을 안내하고 노무 애로에 대비한 긴급 FAQ 작성해 배포·상담에 나선다. 또한 원부자재 부족 기업을 위해 긴급 소싱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